

### 국가 유물정보 공개 2017년까지 93%로 확대

문체부, '유물정보서비스 선진화' 발표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정보 거의 대부분이 일반에 공개되고 유물정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전국의 국공립 대학 및 사립 대학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물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물정보서비스 선진화 추진계획'을 1월 2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부 3.0' 정보공개 확대 정책을 맞게 국가유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현재 3.5% 수준인 국립박물관의 대국민 유물정보 공개율을 2017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92.8% 수준으로 높여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고, 회화, 자기 중심의 유물정보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속사, 자연사 등을 망라하는 표준유물 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모든 국공립 대학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유물표준화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유물정보 관리표준(안)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표준안을 기초로 개별 박물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유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종일 기자

### 불교계 시민단체 '애국가 진본' 찾는다

문화재제자리찾기, 17일 운동 출범식

불교계 문화재 환수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해문)는 1월 17일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대학에서 '애국가 제자리찾기 100인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미국 예모리대에 보관된 윤치호의 자필 애국가 원본 환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치호가 1945년 자필로 애국가 가사를 적고 '1907년 윤치호 작'이라 명기한 이 친필본은 지난 1997년 유족의 기증으로 미국 예모리대에 보관중이다.

단체 대표인 해문 스님은 "문화재료를 보면 애국가 작사가가 윤치호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시된다"며 "애국가 원본은 국가 중요 기록물이므로 대한민국 자존심을 위해 반드시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인 위원회는 오는 30일 경 미국 예모리대를 방문, 애국가 원본을 열람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 천년고찰서 설 보내며 '나' 돌아본다

문화사업단, 설맞이 템플스테이 일정 발표

합동차례, 전통놀이하는 기본

트레킹 등 프로그램 '다채'

2014년 첫 연휴는 주말을 포함한 황금연휴로 시작한다. 들뜬 마음으로 한해 세운 계획도 '작심삼일' 또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해 계획을 다잡을 시기다. 이번 설 연휴는 천년고찰에서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 봄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014년 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천년고찰에서 열리는 '설 특별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이번 설 템플스테이는 합동차례와 전통놀이, 명상, 사찰문화체험, 트레킹 일정이 고루 어우러져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더해준다.

대웅보전의 꽃살문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는 '청마(靑馬)'! 설날에 놀자!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천년고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법고, 운판, 목어, 범종 4개 사물관람은 물론 직접 타종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사찰식 떡국공양, 불화 그리기, 108배, 영화 '오세암' 감상 등 다채로운 산사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해 '제15회 아름다운 화상실 대상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내소사의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에서 묵은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이번 설 템플스테이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지리산의 보물창고'로 불릴 만큼 다양

2014 설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항

사찰명	프로그램	기간	연락처
내소사	사찰안내, 사물관람 및 타종체험 웃놀이, 불화그리기, 오세암 상영	1.30(목)~1.31(금)	063)583-3035
화엄사	웃놀이, 합동차례, 만다라명상, 둘레길 탐방, 지족명상, 연기암 등반	1.30(목)~2.2(일)	061)782-7600
골굴사	사찰 만두 빚기, 민속놀이, 합동차례 선무도 수련, 국궁 체험, 선무도 공연	1.30(목)~2.2(일)	054)775-1689
용주사	통일세배, 스님과의 차담, 108배 명상	1.30(목)~1.31(금)	031)235-6886
수덕사	설 합동차례, 풍등 날리기, 해넘이	1.30(목)~2.1(토)	041)330-0173

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구례 화엄사는 자연과 함께 휴식하는 '작심 4일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작심 4일 템플스테이'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3박 4일간 진행되며, 웃놀이와 합동차례, 떡국공양 등 사찰의 명절 풍속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둘레길 탐방과 연기암 등반, 지족 명상 등 지리산의 기운을 한껏 담아 건강한 마음으로 새해맞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기간 내내 함께하는 스님과의 대화와 화엄사 각할전, 석등, 사자자삼층석탑 등 아름다운 국보 문화재들은 산사 여행의 묘미를 더한다.

경주 골굴사의 '2014 설날 템플스테이'는 한국 선무도를 대표하는 사찰답게 다양한 수련체제로 활기를 전한다.

'2014 설날 템플스테이'는 사찰식 만두 빚기를 시작으로 합동차례, 민속놀이, 발우공양 등 산사의 명절 풍습을 만날 예정. 또 선무도 수련과 국궁체험, 선무도 공연 관람 등 수행 무술을 통한 새로운 사찰 문화를 만날 수 있다. '2014 설날 템플스테이'는 1월 30일(목)부터 2월 2일(일)까지 진행되며,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영어 통역자가 함께 한다.

그 외에도 '효(孝)의 사찰'로 유명한 화성 용주사는 전통적인 산사 명절풍습을 만날 수 있는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불교식 설 문화인 통일 세배와 떡국 공양, 108배, 명상, 큰 스님과 함께 하는 차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화성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창건한 사찰로써, 템플스테이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용, 건릉을 함께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설맞이 템플스테이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다.

근대 한국 불교의 큰 산이었던 경허·만공 두 스님의 선맥이 그대로 남아있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설 템플스테이를 연다. 전통적인 다례의식과 함께 사찰식 떡국 공양, 소원 풍등 날리기 등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 "군장병 물품지원,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

정우 스님, 1월 22일 육해공군 불자장성들과 신년하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1월 22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신년하례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비롯해 조남진 예비역불자회 회장, 원태호 前군불총 회장 등 불자장성들과 육해공군 선임군승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우 스님은 "장병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근 22만여 개의 헌패를 전달했다"며 "원태호 스님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위문품보내기가 가능했다"

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군교구에 대한 교구장 스님의 원력이 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나라를 잘 지켜주셔서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정우 스님은 올해 파송 예정인 비구니 군법사에 대해 7월 입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원래 비구니 스님 2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스님 1명이 그만두며 1명의 스님이 입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조남진 예비역불자회 회장 등 불자장성과 육해공군 선임군승은 1월 22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신년하례를 개최했다.

### "피해 할머니의 상처 마음에 새겨야"

정홍원 국무총리, 18일 나눔의 집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1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에는 나눔의 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노철래 국회의원, 심오택 국정은영실장, 이복실 여성가족부차관, 나눔의 집 원장 원형 스님,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위안부 추모비에 헌화·분향한 후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을 만나 큰절을 하며 일일이 건강상태를 묻기도 했다. 정 총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992년부터 20여 년간 1천 109회에 이르는 수요시위를 계속하는 것만 봐도 그

처가 얼마나 깊고 구구절절한지 온 국민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진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에서 나온 사과와 대책으로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일본이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신권 소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며 "이 할머니들의 소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신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1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사진제공=나눔의 집)

## "소통과 화합 수록재 의미 되살릴 것"

동해 삼화사, 18일 수록재  
문화재 지정 기념법회 봉행  
최문순 도지사 등에 감사패



(사)두타산삼화사국행수록재대본조회(회장 원명)는 1월 18일 동해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삼화사 국행수록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 지정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이재국 국회의원,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 등 600여 대중이 모여 지난해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된 삼화사 국행수록재의 발전을 기원했다.

삼화사는 1월 18일 동해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행수록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 지정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중훈 스님이 삼화사 수록재의 문화재 지정에 기여한 이들에게 총무원장 감사패를 전

달했다. 보존회장 원명 스님(삼화사 주지)은 "삼화사 수록재의 문화재 지정은 우리 모두의 염원과 동참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행수록재 설립의 의미인 소통과 화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불교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사 국행수록재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희생당한 고려왕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당시 백성들과 소통, 화합하기 위해 태조 4년에 설립했다. 삼화사는 의례서인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강원도 유형문화재 160호)에 의거해 매년 3월간 전통방식으로 열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세계 최대와불 부처 쌀바위 미암사 성지순례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공을 들여 살도 나옴, 소원도 성취했다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이름을 따서 쌀(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 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음자만 1만 6천여자가 새겨져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반상 목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동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이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가 제거되며, 신선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신진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 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불기 2558(2014)년 1월

불교성지 미암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 128
문의 ☎ 041)832-1188
전송 041)832-1187